

내가 본 2004, '처음과 끝'

한숨 다 지었으면 이제 준비합시다

주말에 지방에 있는 집에 다녀왔습니다. 출판을 시작한 지 5년째, 아직껏 주말마다 '가족에게로의 여행'을 즐기고 있는 처지입니다. 사정이야 여럿이지만 서울에 거처하나 마련하지 못한 철없는 사십대 중반입니다.

기숙사에서 주말을 보내러 온 아들 녀석과 이번 주도 어김없이 공을 찼습니다. 제 폐부에 남은 더러운 기운 한 모금까지 모두 토해내려고 별이 뜰 때까지 공을 차다가, 이윽고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호젓하게 길을 걷다가 저는 아들에게 조금 안정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하는 게 어떠냐고 어렵게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제법 공부를 잘해서, 그나마 사는 낙을 주는 아들 녀석이 철학이나 미학을 전공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자 녀석이 출판사를 하는 아버지가 청운의 꿈을 꾸는 아들에게 고작 그런 말밖에 해줄 수 없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머쓱해졌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과 초롱초롱한 별빛을 바라보면서, 루카치의 별이나 실크로드를 걷던 고대인들의 별 이야기는 고사하고, 남보다 조금 나은 편안하고 배부른 삶을 권했으니 욕먹어도 씹니다.

갑자기 초라해져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출판을 하면서 윤택한 삶을 원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편이라 호사스런 마음을 버리려 해도,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출판의 미래에 한숨짓습니다. 얼마 전에 도올이 현재를 비판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 '기사에 후원금 주기'에 몇천만 원이 모였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이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지가 꽤 됐음에도, 지식과 정보가 쌍방향으로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현실을 대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주지하다시피 제 직업은 정보와 지식을 지적 쾌락으로 에디팅하여 독자에게 전해주는 대가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글 | 한성봉 (동아시아 대표)

책이 영화, 게임 등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어느덧 책이 가진 '읽는 즐거움'의 폭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 오락적 기능이 사실상 항복을 하고 정보와 지식으로 책의 판이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인터넷의 발빠르고 활기찬 쌍방향 전달에 또 났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판계는 올 한 해 심각한 불황에 빠졌습니다. 근래 2~3년간 비교적 호황이었던지라, 국가의 경기 전반이 어려우니 그럴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내년 내후년이 더욱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호·불황을 떠나 종이에 잉크를 묻히는 산업 전반의 사양산업화를 걱정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모두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선우후락(先憂後樂)이라 했던가요. 항상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는 법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후죽순 난립한 출판사들을 경쟁력 있게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그래도 종이책은 남는다'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전자책의 빠른 정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출판계 대표 단체에서 보다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아들 녀석에게 자신 있게 인문학 공부를 하라고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아들 녀석에게 싱긋 웃으며 어깨를 툭 칩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희망이 인류를 지탱해 왔다고, 아빠는 그래도 공부 잘해서 효도해 주는 아들이 있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제 부모에게 그런 효도 한번 못했습니다. 갑자기 저녁상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생각에 서둘러 목욕탕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한성봉**